

‘독이 된 가정의달’...광주·전남 두자리행진

끝 없는 산발감염에 변이까지...5월에만 666명 학교·유흥시설·자영업·종교까지 급속히 퍼져 변이바이러스 지역감염 잇따르고 돌파 감염 우려 방역당국 “엄중한 상황...덜 만나고 더 떨어지자”

가정의 달이 코로나19 방역에는 독(毒)이 됐다. 서로의 안부를 나누기 위한 만남이 도리어 바이러스 확산의 도화선이 되면서 곳곳에서 터지는 산발적 감염으로 소규모 대유행이 5월 내내 이어지고 있다.

‘5월 만남’을 계기로 학교와 대기업은 물론, 공공기관과 ‘방역 전초기지’인 선별진료소까지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생활방역망 곳곳이 속절없이 풀리고 있다. 변이바이러스와 함께 미형성에 따른 이른바 ‘돌파 감염’도 넘어야 할 고비다.

24일 광주·전남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현재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광주 2726명, 전남 1405명으로, 광주·전남 합쳐 4131명에 이른다. 95%는 지역 내 감염이다.

광주·전남 통틀어 4월29일 9명, 30일 7명이던 신규 확진자는 공교롭게도 5월 가정의 달로 넘어가자마자 단 하루도 빠짐없이 두 자릿수 행진을 이어가며 마지막 한겨울 상황처럼 월간 누적 666명(광주 316, 전남 350)을 기록하고 있다.

24일 연속 두 자릿수 확진이 계속되

는 가운데 지난 13일에는 일일 확진자가 62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광주와 전남도가 자체 대책회의를 열고, 대규모 확산 방지를 위해 특별방역주간을 각각 1주일과 2주일씩으로 연장하는 등 방역의 고삐를 바짝 당기고 있으나, 감염세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특히, 감염 경로가 유흥주점, 노래방, 사우나, PC방 등 다중이용시설과 학교, 교회, 콜센터, 대기업, 유통업체 등으로 다양하고, 경로가 불분명한 확진도 계속 발생하고 있어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5월 중 각종 모임이 많아지면서 타 지역 확진자에 의한 감염 사례가 늘고, 가족간 감염 여파로 교육현장은 초비상이다.

전남에서는 일가족 10명 이상이 무더기 감염됐고, 광주에서는 5월 들어서 타 지역 확진자에 의한 감염 사례가 늘고, 가족간 감염 여파로 교육현장은 초비상이다.

전남에서는 일가족 10명 이상이 무더기 감염됐고, 광주에서는 5월 들어서 타 지역 확진자에 의한 감염 사례가 늘고, 가족간 감염 여파로 교육현장은 초비상이다.



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로 확대하는 등 고강도 방역에 나서고 있지만 광주에서만 최근 1주일 새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100건 가까이 적발됐다.

지역 내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광주와 전남 각각 10명씩 영국발 변이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에서는 지난 2월 시리아인 일가족 등 10명이 변이바이러스에 감염된 이후 추가 발생은 없는 반면 광주는 최근까지 변이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3월까지의 해외입국자에게서만 검출됐던 영국발 변이가 4월 이후에는 내국인을 중심으로 발생하면서 광산구 모 고등학교 관련 2명과 감염 경로 미확인 2명, 타 시·도 관련 1명 등 모두 5명이 영국발 변이로 확인됐다.

김민정기자

보성경찰, 전신주 안심스티커 설치사업 추진

보성경찰서(서장 박임규)는 지난 20일 한국전력 보성지사(지사장 배형문)와 전신주 위치를 확인할수 있는 ‘전신주 안심스티커 설치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신주 안심스티커 설치사업은 신고자의 위치파악이 어려운 지역에 한전 전신주의 고유번호를 활용해 안심신고망을 구축하는 것으로 한전과 경찰이 협력해 신속한 위치확인으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보성만들기를 위한 사업이다. 특히 한전 소속의 전기검침원들을 신고요원화하여 사회적약자인 치매노인, 여성, 장애인들의 사건 발생시 신속한 사건해결을 위하여 협업체제를 구축하였고, 박임규 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공동체치안 활동으로 보성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성=김복순기자

영암소방, 신규 소방공무원 임용장 수여

영암소방서(서장 임동현)는 24일 신규발령 소방공무원 5명에 대한 임용장을 수여하였다.

이들 신입 소방공무원들은 지난 12주간 전남 소방학교에서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 현장활동에 필요한 교육훈련 과정을 수료하고 영암소방서에 임용됐으며, 4주간 분서 자체 직무·소양교육 등을 받으며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첫발을 내딛게 된다.

임동현 서장은 “영암소방서로 신규 발령받은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환영한다”며 “소방관으로서의 열정과 신념을 갖고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 신뢰받는 소방공무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영암=조대호기자

무안소방, 2021년 한국119청소년단 입단식

무안소방서(서장 박원국)는 지난 21일 무안북중학교 지도교사와 청소년단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한국119청소년단 입단식’을 가졌다.

무안소방서에서는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체계적인 안전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소방안전문화를 조기 정착시키기 위해 한국119청소년단을 조직 운영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신규 대원들의 입단을 기념하고, 화재발생시 행동요령과 소방안전교육 등을 실시했다.

예방안전과장 김선옥은 “한국119소년단의 다양한 체험활동 등을 통해 미래의 안전지킴이로서의 역할을 다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함평=김광훈기자

순천소방, ‘화재알림경보기 인명피해 저감’ 효과 입증

순천소방서(서장 하수철)는 최근 주택에 소화기, 화재알림경보기 설치 후 화재피해를 예방 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지난 3월 26일에는 오전 12시쯤 조곡동 모텔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관계인이 단독경보형감지기 소리를 듣고 투숙객을 대피시킨 후 모텔에 비치된 소화기로 초기 진화했다. 감지기가 모텔에 투숙중인 25명의 인명을 살린 셈이다.

일찍 도입을 시작한 외국에서도 인명피해 저감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으며 특히 연기를 감지해 경보음으로 화재를 알려주는 화재알림감지기 설치율이 높을수록 저감효과는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순천시·구례군은 작년까지 주택용 소화기와 화재알림경보기를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등)에 무료 보급을 완료하고 올해부터는 독거노인, 장애인가구 등에도 확대 보급한다는 것.

그밖에 일반계층 주택에는 소화기와 화재알림경보기의 필요성을 알려 자발적인 설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주민에게 홍보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하수철 순천소방서장은 “주택용 화재경보기의 효과가 여실히 입증된 만큼, 순천소방서는 다양한 매체와 캠페인을 통해 주택용 화재경보기 자발적 설치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부담되는 가격이 아닌 만큼 주민분들께서도 반드시 구비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김승호기자

“광주 유동인구 많은 유스퀘어 커피숍서 확진”...긴급 역학조사

축산 유통업·교회 예배 등 17명 추가...누적 2726명 전남 화순·순천·보성서 1명씩 추가...누적 1405명

광주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유스퀘어 인근의 한 커피전문점 운영자와 축산업 유통업, 교회 예배에 참석한 시민 등 17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전남에서는 확진된 자녀를 돌보기 위해 격리병상에 함께 입원한 어머니와 순천나이트 클럽 관련 자가 격리자 등 3명이 추가됐다.

24일 광주와 전남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광주에서 17명, 화순과 순천·보성지역에서 3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광주는 2710번~2726번, 전남은 1403~1405번 확진자로 등록됐으며 이들은 격리병상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광주 2710번·2713번~2716번·2718번·2719번·2721번~2725번 등 12명은 전남 확진 판정을 받은 축산업 유통업자(광주2697번) 관련이다.

이들은 광주2697번의 직장동료와 가족이며 밀접접촉자 추가 검사를 통해 감염이 확인됐다.

방역당국은 확진자의 정확한 등

선과 밀접접촉자 파악을 위해 심층 역학조사를 벌이는 한편 이틀동안 13명의 확진자가 나온 축산물 판매점에 대해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또 이날 광주에서는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방역당국이 긴급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광주2726번은 코로나19 증상이 있어 전남 검사를 받았으며 유스퀘어 인근에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커피전문점은 타지역민 유입이 많고 대형 백화점으로 연결되는 공간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파악돼 방역당국은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방문자에 대해 선별진료소 검사를 안내하는 등 심층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날 확진자 중 광주2711번과 2712번은 가족으로 지난 9일부터 22일까지 월산동의 한 교회 새벽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돼 방역당국은 정확한 교인 수 등을 파악해 전수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지역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에서 확진자가 발생해 방문자와 밀접접촉자 파악하고 있다”며 “타지역 인근 커피전문점을 이용한 시민은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동취재본부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